예배순서

다같이 입례 / 예수 이름이 온땅에 *경배와 찬양 예수로나의 구주 삼고/그 사랑/더 원합니다 대표기도 김정민 민현진 *성경봉독 마 7:13-14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박정호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mark>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mark>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좁은 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설교이지만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좇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숫자적 개념만은 아닐 것입니다. '길'은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언어이기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신앙인이 평생 살아가는 마음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인생에 있어 4가지의 지혜와 축복의 길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가족, 부, 명예, 종교입니다. Marcus Borg는 넓은 문이란 이 네 가지를 좇는 전통적인 삶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이 네 가지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적인 삶 뿐 아니라, 비록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아니라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좁은 문이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져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은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기에 대단히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원 뿌리가 내 자아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며, 그 길에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는 자기애를 강조하기에 우리는 우리 이성과 감정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이성과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렘 17:9)

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 속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 상수훈의 말씀들이 실제로 살아집니다. 팔복의 말씀들이 세상의 보이는 축복보다 더 진정한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기 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의 순수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세상의 약자들을 보호하 고 먹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아 그 길의 **위험성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캘빈, 웨슬레) 그런데,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롬 12:2, 마 8장) 이처럼, 세상의 풍조에 길들여진 크리스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버리어져 밟힐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가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비록 힘은 들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 내 자아에 삶의 뿌리를 둘 것인가, 세상 풍조와 맞서서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둘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이란 세상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내 인생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도록 권면했던 운 동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산책

좁은 문은 항상 힘들고 괴롭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그 곳에는 참 기쁨과 진정한 보람과 인간미 넘치는 따스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 없는 교감과 공감, 인간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또,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극복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좁은 길 여정을 완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의 목자이자 동반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험하지만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1.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를 각자 이해한대로 함께 나누어 보세요.
- 2.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 3.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望星管的 四世 星是月 发玩吧? (近 秋日)巨村里时间(四)(亚 秋丛全 发动下,



파송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횔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참단부 데 와에 찾아 주신 더러분호 주날의 이를 로 한당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 리더모임

12월 3일 (토) 7시

세례, 입교, 유아세례식

일시: 12월 18일(주일) 신청: 12월 4일까지

교육: 12월 10일 (토) 오후 2~4시, ZOOM

문답: 12월 17일(토) 오후 2시, 교회

AKPC 2022 Christmas Banquet

12월 18일 (일) 5:00 pm - 7:30 pm 저녁식사, 장기자랑, 퀴즈, 게임, 상품, 어워드 Volunteer 4-5명 모집

1. Decoration Set Up

- 2. Table and Chair Set up
- 3. Food Preparation
- 4. Photographer

팀원 모집

찬양팀 - 싱어, 베이스기타 (문의: 조학영) (찬양팀섬김이 아니라도 베이스기타 배움에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정회영) 예배팀 -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문의: 박정호) 기획팀 - 행사기획 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정재인)

문서선교부

문서선교부 부원 모집 중 간증문이나, 시, 수필, 독후감 등의 원고 접수중 연락처 : 오선주 집사 (kingkids780@hotmail.co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제 50권 45호 NOV 27 2 0 2 2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지도장로 김상범 김종환 cptksb3@gmail.com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박샤론

eunbe.or@gmail.com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G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

